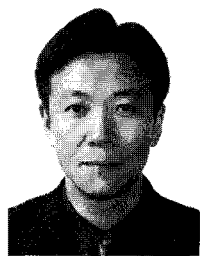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문명호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낙농팀장

지난 해 연초 경기지역 구제역 발생, 한·미 및 한·EU FTA체결, 하절기 이상기후로 인한 원유생산량 감소에 이어 11월 말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3개월 넘게 지속되는 등 내·외부적인 문제로 인해 우리 낙농산업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으며, 또한 정부, 농협 등 관련단체, 특히 낙농가가 심각한 충격을 받았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문제는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 낙농산업은 세계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있으며, 또한 국민에게 신선한 유제품을 공급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구제역 이후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낙농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의 재건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피해현황

지난 해 11월 말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11년 3월 16일 현재 젖소 살처분 두수는 구제역 발생 전 대비 약 8.5% 수준인 36.4천 여두로 집계되었으며, 원유 집유량은 '11.1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한 158천



톤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원유부족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분유 재고 또한 전년 1월 말 대비 73% 감소한 1,398톤으로 적정 재고 수준인 5,000톤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는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두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작년 여름 이상기후로 젖소 수정률이 떨어져 송아지 출생 감소 및 고온으로 인한 원유생산 감소 등으로, 이와 같은 여러 악재가 겹쳐 원유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착유시까지 28개월 가량 소요되는 젖소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단기적으로 원유 증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농협에서는 지난 3월 2일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하여 정부, 학계 및 관련단체 대표와 낙농산업 안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다.

원유생산 회복 건인방안 및 목장경영 안정화 방안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

미국의 경우 목장과 목장 사이의 거리가 3~4km 이상 떨어져 있어 방역이 용이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상 이와 같이 사육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방역에 더욱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생산성 향상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금번 구제역 사태와 같은 방역 상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금번 1·2차에 걸친 백신접종으로 우리 젖소의 경우 백신접종 이후 구제역 발생 사례가 신고 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추가 발생의 가능성은 매우 낮으리라 예측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더 이상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라고 볼 수 없으며 금번 구제역과는 다른 유형의 다양한 바이러스가 존재하므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형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백신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접종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2월 7일자 일본 농업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지난해 4월 구제역이 발생했던 일본이 사후 철저한 관리와 방역을 통해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쇠고기 수출을 재개했다고 한다. 우리도 이러한 일본의 사례처럼 구제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백신접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속히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번의 구제역 사태를 통해 다시금 배우고 느낀 방역의 중요성을 상기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

젖소 살처분 보상체계 관련

현재 낙농부문에 대한 살처분에 따른 보상은 유통시장에서 형성된 공정가격이 아닌 시가를 적용하다보니 실제보다 저평가 되어 있으며, 6개월 분의 유대손실 보상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그 기간이 짧게 산정되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다산우와 고능력우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저평가 되어 있어 낙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피해를 입은 낙농가의 조속한 목장경영의 활성화와 이로 인한 원유생산회복 및 안정적인 낙농업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금번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낙농업을 다시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대응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지나친 보상 확대는 낙농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거시적으로는 타 축종, 타 산업에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낙농가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원유수급안정대책

원유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대안으로는 ‘젓소 생우 수입’ 건이 있다. 이는 착유 가능한 젓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육함으로써 낙농업 유지 및 원유의 지속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방역조건 및 위생조건 등의 제한으로 실질적으로 수입을 할 수 있는 국가 선정에 있어 그 선택의 폭에 한계가 있으며, 수입이 가능하다고 해도 대상국 젓소의 산유능력이 국내 젓소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고 방역상의 문제 및 국내 계류상 문제 등 도입상 여러 어려움이 있어 원유수급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용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의 조속한 도입이 있다. 새로운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은 유단백 요소를 가격산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현재 평균 2.9산인 도태 산차를 연장함과 동시에 체세포수 개선에 효과적이므로 안정적인 우유 수급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암소 생산을 늘리기 위해 성감별 정액의 생산 및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원유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있다. 외국의 성감별 정액은 최상위 능력우를 제외하고 만들기 때문에 개량효과가 낮으며 수태율이 경산우에서는 비교적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국내의 우수한 젓소를 이용한 성감별 정액을 생산하고 이를 공급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원유수급의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단기적으로 현행 기준 원유량의 5%를 비퍼물량으로 설정하여 정상가격을 2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낙농가 폐업에 따른 기준 원유량 인도인수시 폐업농가 기준 원유량의 20%를 회수하던 정책 또한 2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대책을 통해 쿼터로 인하여 제한되었던 원유의 생산량을 다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낙농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연간 210만 톤의 원유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가공원료유 쿼터부여, 평균산차 연장, 양질조사료 공급확대, 중앙낙농기구 설치, 기본원유가 연동제, 육성우 전문목장 조성, 후계 낙농인 양성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속적인 낙농산업을 위한 대책

최근 조사에 의하면 살처분이 이뤄진 낙농가 중 거의 100%에 달하는 농가가 재입식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낙농산업이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갈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산업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낙농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본인의 의지도 아닌 다른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결국 낙농업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농협은 한국낙농육우협회, 축산신문사와 공동으로 희망 젖소니움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속적인 언론홍보와 낙농가에 호소문을 발송하여 범 낙농가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입식을 희망하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낙농업의 재개를 위해 낙농가, 정부, 낙농관련 단체가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좌담회, 심포지움 등 각종 회의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해 토론하고 미래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감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마무리하며

비단 금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위기뿐만 아니라 그동안 낙농업에는 FTA 체결확대, 고유가지속 및 곡물가 상승 등 많은 장애요인이 있었다. 하지만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낙농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 상위 수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사자성어처럼 금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위기는 낙농업의 발전을 위한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면 우리 낙농업은 더욱 한 단계 성장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 관련 단체가 낙농업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낙농업의 발전을 이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축산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대한민국 산업 중 필수적인 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다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